

# “계엄군 총칼에 짓밟힌 시민 치료하며 울분”

## 김홍빈 대장, 히말라야 14좌 완등 내년으로 연기

**광주시간호사회 5·18 구술 증언집 발간**  
 광주시독병원 등 간호사 10명 이야기 회고  
 “계엄군이 병원 향해 총을 쏘는 것 못 잊어”  
 병원에서 경험한 당시의 생생한 이야기 담아

“난자된 생명들을 구하기 위해 혼신을 다해 간호했습니다.”(안성례·전 광주시독병원 간호감독)  
 “계엄군이 병원을 향해서 총을 쏘는 것에 분노했었습니다.”(이진숙·전 전남대병원 일반병동 간호사)

1980년 5월, 무자비한 계엄군의 총칼에 짓밟힌 광주 시민들을 치료하고, “울면서, 분노하면서” 병동을 지켰던 광주 간호사들이 40년 전 잊을 수 없는 ‘그 날’을 회고한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지역 병원에서 부상당한 시민군 등을 치료했던 간호사들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온다.

5·18기념재단이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광주시간호사회와 함께 발간한 ‘5·18의 기억과 역사 10: 구술 생애사를 통해 본 간호사 편’이다.

책에는 1980년 당시 민간인 부상자 치료를 담당했던 광주시독병원, 광주적십자병원,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4개 병원에서 활동하던 이들의 이야기가 담겼다.

곽명자·소연석·안성례(이상 광주시독병원), 박미애·



안성례



이주



곽명자



손민자

이주(이상 광주적십자병원), 노은옥·손민자·이진숙(이상 전남대학교병원), 나순옥·오경자(이상 조선대학교병원) 등 10명이 기억을 되짚는다. 간호감독 이상 고위 간부직, 수간호사 등 중간 간부직, 일반 간호사 등 다양한 직위로 일했던 이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의료인으로서 부상을 입은 환자를 치료한 간병기, 피가 부족해 스스로 현혈을 했던 일화 등 병원에서 경험한 5·18을 여과 없이 들려준다.

간호사 입문 배경과 병원 생활, 5·18에 관한 인식과 병원 분위기, 계엄군·시민군·일반 시민과의 관계, 5·18로 인한 병원 운영 시스템·치료활동 변화, 의약품·식품 등 조달·공급 방법 등 이야기도 다룬다.

면담 내용은 광주시간호사회가 지난 2011년 발간한

‘간호사들의 구술록’을 편집·수정·보완했다. 면담은 지난 1996~2011년에 진행됐으며, 구술연구방법론에 따라 집단·종합적으로 이뤄졌다. 5·18이 짧은 기간에 특정 공간·장소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 정확할 상황 정리가 어렵고 혼선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자료를 미리 제공하고 숙지할 시간을 주는 등 최대한 정확하게 기억을 짚을 수 있도록 조사했다.

한편 이번 책은 ‘5·18의 기억과 역사’ 시리즈 10번째 권이다. 1권 교육가 편을 시작으로 2권 사회운동가 편, 3권 농민운동가 편, 4권 공직자 편, 5권 천주교 편, 6권 사회활동가 편, 7권 기독교 편, 8권 불교·원불교 편, 9권 송백회 편 등이 발간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 김홍빈 대장의 장애인 최초 히말라야 14좌 완등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애초 오는 6월로 예정됐던 2020년 브로드피크(8047m) 원정이 파키스탄 내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제동이 걸렸다.

2020 김홍빈 브로드피크 원정대는 지난 17일 광주 동구시 운림동 원정대 사무실에서 원정 추진단장과 고문, 위원 및 대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오는 6월 10일로 예정된 원정계획을 2021년으로 변경했다.

원정대는 현재 파키스탄 내 코로나 19 누적 확진자 수가 4만2000여명이 넘어서고 있어 원정대의 안전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홍빈 대장은 “히말라야 14좌의 마지막 정점인 파키스탄 브로드피크 원정이 연기되어 매우 안타깝다”며 “1년이라는



시간이 다시 주어진 만큼 준비와 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도전 중인 김홍빈 대장은 2008년 마칼루(8463m·네팔), 2009년 다울라기리(8167m·네팔), 2011년 초오유(8201m·네팔) 2012년 K2(8611m·파키스탄), 2013년 칸첸중가(8586m·네팔), 2014년 마나슬루(8163m·네팔), 2017년 로체(8516m·네팔), 남가파르밧(8125m·네팔), 2018년 안나푸르나(8091m·네팔), 2019년 가셔브롬 1봉(8068m·파키스탄)을 차례로 오르며 파키스탄의 브로드피크 단 1곳만 남겨두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적십자, 새남학교에 어린이 안심키트 지원



### 희망풍차 아동청소년에도 전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박흥석)가 18일 새남학교(교장 이천영)에 틈튼어린이 안심키트를 지원했다.

틈튼어린이 안심키트 지원사업은 부모나 보호자의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등 재난취약계층 아동들의 코로나19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안심키트는 코로나19 극복 성공모금캠페인을 통해 모인 지정기부금으로 제작됐다. 기능성 마스크, 손소독 물티슈, 손세정제 등 8개 품목으로 구성됐으며, 총 1만 2120개가 제작됐다.

새남학교에는 70개가 전달됐으며, 적십자봉사원을 통해 희망풍차 결연지원세대 아동청소년에 430개를 전달할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TV프로그램

2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20주년 기획 인간극장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나쁜 사랑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엄마가 바람났다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00 기막힌 유산(재) 40 무한리얼 셀러드	35 930 MBC 뉴스 50 전라남도 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야생여정	00 영혼수선공(재)		00 애니갤러리 30 애니메이션 런닝맨 2 스페셜 45 헬로키토 유니버스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빅스브 55 뽀뽀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네모세모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고교생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2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키토 동물교실 2(재) 50 전라남도 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팔도밥상(재)			00 뉴스브리핑
[3]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나쁜사랑(재)	
[4]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00 무한리얼 셀러드(재)	00 콘대인턴 라떼는 말이야 스페셜	00 브라보 마이 라이프(재)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시노스톤 프라임 30 꿀잼 영화가 좋다	00 5 MBC 뉴스 30 5.18 민주화운동 40주년기념 광주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광주여영원회>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30 오매! 전라도	00 5.18 40주년기념 광주 국악상설특별공연 <오월의 약속>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오월애인연 3부작	50 위험한 약속	35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아리됐다 45 스마트한 마을이아기 스페셜
[8]	10 집중 인터뷰 이사람 30 기막힌 유산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콘대인턴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10]	00 생로병사의 비밀 55 더 라이브	00 영혼수선공	05 실화탐사대	00 트롯신이 떴다
[11]	35 UHD 슈퍼 4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 도올학당 수다승철	05 라디오스타 1~2부	10 백중원의 골목식당 1~2부
[12]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50 인간극장 스페셜(재)	15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영상앨범 산(재)	35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 EBS1

07:00 꼬마버스 타요  
07:15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  
07:30 뽀뽀뽀 뽀로로  
07:45 개구쟁이 스텝  
08:00 땃땃땃 유치원  
08:30 출동! 슈퍼왕스  
08:45 방귀대장 뽀뽀이  
09:00 픽시  
09:30 페파 피그  
0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경이로운 지구

12:25 세상의 모든 법칙  
12:30 EBS 마스터  
13:00 EBS 다크프라임  
13:50 EBS 초대석  
14:40 마사와 곰  
14:55 뽀로로와 노래해요(재)  
15:00 해와 해와  
15:10 꼬마버스 타요(재)  
15:25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재)  
15:5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재)  
16:10 픽시(재)  
16:25 방귀대장 뽀뽀이(재)  
16:40 땃땃땃 유치원(재)  
17:00 EBS 뉴스  
17:20 출동! 슈퍼왕스(재)

17:35 페파 피그(재)  
18:00 생방송 토틀! 보니 하니  
19:00 형사 가제트  
19:30 최고! 호기심딱지  
19:45 자이언트 팽TV  
20:0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세계의 지붕, 하늘을 달린다  
-행복의 나라, 부탄>  
21:30 한국기행  
<절반 한 그릇 3부  
불날의 천성산에 가면>  
21:50 EBS 다크프라임  
22:45 극한직업  
23:30 EBS 비즈니스 리뷰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0일(음 4월 28일 癸亥)

36년생 전후의 사정과 면모를 잘 살펴라. 48년생 미리 확보 해 두지 않는다면 서두르게 될 것이다. 60년생 끝나는 마당 에 문제가 붙을 수도 있다. 72년생 혼탁한에서 벗어나 흑과 백으로 나누어지겠다. 84년생 어중간하여 이리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수다. 96년생 불행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딱 잘라서 개선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47, 82

37년생 쉽게 융합 될 수도 있지만, 49년생 관계가 급속히 냉각 되어질 수도 있다. 61년생 대단하지는 않지만 그렇다 고 무시할 만한 정도도 아니다. 73년생 지난 일에 얽매었다 면 동력이 약화 되리라. 85년생 이슬에 옷 젖는 줄 모르듯이 은근히 진행 되어질 수도 있다. 97년생 치밀한 계획이 필요 하도다. 행운의 숫자 : 21, 78

38년생 차별화 시키지 않는다면 진전을 도모하기 힘들 것이 다. 50년생 시일을 두고 고민한 후에 방안을 모색하라. 62년생 최선을 다 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74년생 기다리 는 것이 효과적이다. 86년생 오래 된 인간관계에서 파생된 인 연이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98년생 당해 문제를 한 번에 다루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행운의 숫자 : 85, 67

39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는 큰일을 당할 수도 있느니라. 51년생 목적을 달성 하리라. 63년생 상호간에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75년생 쉽게 보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느니라. 87년생 급변하고 있는 추세이니 적절히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99년생 권유 받을 수도 있으나 행하지 않 으면 그만이다. 행운의 숫자 : 06, 55

40년생 말이 아니니 하지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52년생 오는 손님 막지 말고 가는 손님 잡지 말지이다. 64년생 진 귀한 기회이니 수용하라. 76년생 반드시 작용하고 있는 바 가 있다. 88년생 암시하는 징후가 보일 것이다. 00년생 예외 를 두지 말고 원칙대로 처리해줘야 뒤탈이 없다. 행운의 숫자 : 05, 54

41년생 불합리한 점을 제거하라. 53년생 효과를 보기에는 아직 이른 마당이다. 65년생 참예한 이해관계로 인해 민감 해지겠다. 77년생 경청하라. 89년생 확실하여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 01년생 미래에 대한 투자로 여긴다면 마음 편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4, 79

42년생 세밀하게 재검토 하지 않으면 허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54년생 다양한 기회와 조건들이 보인다. 66년생 확장 하지 말고 유지함이 합리적이다. 78년생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제스처와 채널이 절실히 필요하다. 90년생 시인스럽게 진행되지만 장기적이지는 않다. 02년생 목은 것을 버려야 새로운 것을 답을 수 있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32, 75

31년생 행동을 같이 하지만 마음은 공 말에 가 있다. 43년생 제반 여건을 고려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마다. 55년생 성취 의 기쁨을 만끽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67년생 방법이 따라서 상황이 편이해질 수 있겠다. 79년생 관계자들의 의지와 상관 없이 다소 지연 될 수도 있음을 감안하는 것이 옳다. 91년생 의연히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45, 68

32년생 주변 사람의 괴로움을 보게 되리라. 44년생 예상보 다는 나의 결과이다. 56년생 지극히 알찬 결과의 산출이 예 상된다. 68년생 단단히 마음먹고 있어야겠다. 80년생 목적 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급속히 빨리 청산하는 것이 옳다. 92 년생 힘들인 만큼에 비례하여 성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 46, 66

33년생 비교 해보면 알 수 있다. 45년생 예상치 못했던 데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57년생 당분간 긴장의 끈을 놓지 말 아야겠다. 69년생 한 가지 일에 전념해야 성사시게 될 것 이다. 81년생 애매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물어봐서 확실하 해줘야 한다. 93년생 생각한 것보다 더 나은 성과가 기대 된 다. 행운의 숫자 : 18, 56

34년생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 46년생 처음처럼 깔끔하게 해나가지 않으면 부실해지기 쉽다. 58년생 쓸모없 다면 미련 없이 버려라. 70년생 너무 완벽하게 처리 하려다 보면 추진력이 떨어지느니라. 82년생 길잡이 보이기 대단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94년생 길잡이 하니는 일 마다 순조롭게 펼쳐지겠다. 행운의 숫자 : 17, 72

35년생 징후를 무시하거나 연기한다면 붕괴하게 된다. 47 년생 결연한 의지로 분명한 언행을 보여주어야 할 때다. 59 년생 만전을 기해야만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71년생 바로 잡아야 후환을 예방할 수 있다. 83년생 육성을 가릴 줄 알아야겠다. 95년생 용기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으니 망설 이지 말고 실행하라. 행운의 숫자 : 31, 65